

한국어 감탄사의 영어 번역 사례 연구*

주진국
(충남대)

1. 서론

동화는 소설 문학에 포함되면서도 일반적인 소설 문법을 온전하게 따르지 않는 독특한 산문 장르이다(김현숙 2000: 1). 동화의 주된 독자인 유아와 아동은 아직 인지적으로 낮은 발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동화에서 교육성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교육적 기능은 교훈적 내용뿐만 아니라 유아와 아동의 언어 학습을 위한 언어적 재료들을 통해 구현되기도 한다. 유아와 아동이 동화를 통해 언어를 익히는 데 큰 도움을 얻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화는 교훈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도 적어도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교육적 기능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육적 기능을 담당하는 동화의 언어적 재료에는 재미있고 경쾌한 어감을 주는 여러 가지 흥내말과 이러한 흥내말을 일부 포함하는 감탄사가 포

* 이 연구는 2014년도 충남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함된다. 감탄사는 동화에서 등장인물의 감정, 느낌, 태도 등을 생동감 있고 정감 있게 전달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동화의 재미를 구현하는 주요 언어적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¹⁾ 특히 일반적으로 감탄사가 많이 나오는 유아 동화의 구연에서 감탄사는 등장인물의 느낌이나 의지를 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이다.²⁾

본고는 동화에서 감탄사가 갖는 중요한 담화적 역할을 인식하고 담화 의미를 기준으로 한 한국어의 감탄사 분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12편의 한국 전래동화 및 창작동화에 쓰인 감탄사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러한 감탄사의 한영 번역 양상은 어떠한지 고찰한다.

2. 한국어와 영어의 감탄사 분류

감탄사는 한국어와 영어에서 공히 통사적으로 문장과 가장 관련성이 적은 항목으로서 구문적 고립성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비전형적(non-canonical)이고 비규약화된(non-conventionalized) 감탄사가 쓰이기도 하고 ‘악’을 ‘아아아악’으로 쓰거나 ‘aah!’를 ‘aaaah!’로 쓰는 것처럼 특정 감탄사는 음절을 겹쳐 쓰거나 모음을 늘려 쓸 수 있다. 영어의 경우 ‘AAAAAH!’와 같이 자모음을 모두 대문자로 표현할 수도 있고 ‘aaaaaah!!!’와 같이 느낌표를 몇 개 겹쳐 씌으로써 감탄사의 담화적 기능을 한 층 더 강조하기도 한다.

감탄사는 화자에 따라, 그리고 미묘한 소리의 차이나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분화될 수 있고, 그 표현성의 강도가 변화할 수도 있다. 예컨대 ‘놀람’을 나타내는 ‘허’ 같은 경우 여성이나 어린아이가 쓸 수도 있지만 어딘지 수염을 쓰

-
- 1) 물론 동화의 재미 요소에는 이와 같은 언어적 재료뿐만 아니라 특징적인 이야기 구조도 포함된다. 이지영(2013: 265)에 따르면 아동은 환상(fantasy)을 통해 현실적인 시간과 공간의 구속을 넘어 자유롭게 상상하는 즐거움을 느끼며, 때로는 현실의 규칙과 상식을 벗어남으로써 현실에서 느끼는 억압을 잠시 잊기도 한다.
 - 2)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에서 펴낸 특수분야 직무연수 책자 『생각의 힘을 키우는 동화구연[2기]』에서 강현경(2013: 9)은 등장인물의 감정을 분석하여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언어에 의한 표현, 음성에 의한 표현, 동작에 의한 표현, 감탄사(느낌말)의 표현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다듬으며 어르신이 하는 말처럼 들리고, ‘어머’나 ‘에구머니’는 주로 여성들이, 그리고 ‘허걱’이나 ‘헐,’ ‘에혀’ 같은 말들은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젊은 층이 주로 쓰는 말이다(김양진: 2011). 이러한 것들을 모두 고려한다면 감탄사의 번역은 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한국어의 감탄사 표제어는 고어와 방언, 비표준어, 북한어, 역사어를 포함하여도 879개에 불과한 반면(전영옥 2012: 242), 영어의 감탄사는 2,335개에 달한다.³⁾ 동화에 자주 나타나는 한국어 감탄사는 그 대상이 유아와 아동이므로 그 유형에 있어 매우 제한적이며 표준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어 번역어도 표준적이고 규약화된 감탄사가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1 담화 기능에 따른 한국어 감탄사의 분류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감탄사는 말하는 이의 본능적인 놀람이나 느낌, 부름, 응답 따위를 나타내는 말의 부류로서 간투사, 감동사, 느낌씨, 늑씨 등으로도 불린다. 감탄사는 전통적으로 품사의 하나로 분류되어 왔지만 학자에 따라 감탄사의 분류 방법이 다르다. 그러나 여러 형태의 감탄사 분류에서 감탄사를 다른 품사와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이고 공통적인 품사적 특징은 함께 쓰이는 문장의 통사구조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감탄사의 ‘독립성’에서 찾을 수 있다.

감탄사는 흔히 청자가 상정되어 있느냐를 기준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남기심과 고영근(2014: 179)은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고 감정을 표출하는 감정감탄사, 발화현장에서 상대방을 의식하며 자기의 생각을 표시하는 의지감탄사, 특별한 뜻 없이 나는 소리들이 속하는 입버릇 및 더듬거림으로 구분하였다.

3) 영어의 감탄사 표제어 수는 인터넷 오픈 콘텐츠 사전 위키너리(Wiktionary)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 낱말사전에 감탄사로 등재되어 있는 어휘 항목들은 현재는 거의 쓰이지 않는 것들이 포함되고, 스코틀랜드, 호주, 캐나다 등 영어문화권의 특정 지역에서 사용되거나 그러한 지역의 특정 계층 간에만 사용되는 방언부터 감탄사로 쓰일 수 있는 상징어와 관용표현까지 등재되어 있어 사실상 큰 의미는 없다. 참고로 음성상징어의 예는 ‘nom nom nom,’ 관용표현은 ‘not on your tintype,’ 속된 표현과 완곡한 표현은 ‘no shit, Sherlock’과 ‘no excrement, Sherlock’ 등을 들 수 있다.

느낌을 나타내는 감정적 감탄사와 세계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의지적 감탄사를 구분한 신지연(2001: 255)도 청자 상정 유무에 따라 각각 단독적 장면(감정적 감탄사)과 상관적 장면(의지적 감탄사)에서 발화되는 특징을 언급한다. 감정 감탄사는 어떤 것을 처음 인지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처음 앎]과 [-처음 앎]으로 다시 세분되고 의지적 감탄사는 부르거나 대답하는 소리, 명령적 감탄사, 그리고 문장의 처음이나 중간에 머뭇거리는 소리로 세분된다.

반면에 전영옥(2012: 240)은 감탄사가 청자를 상정한 구어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청자 상정 여부에 따른 감탄사의 구분이 적절하지 않고 기존의 구분에 구령, 동물이나 아이에게 행동을 유발하는 소리, 가족 관계 호칭, 욕설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표 1>과 같이 감탄사를 구분하였다. 전영옥(2012)에서 감탄사는 화자가 자신의 느낌이나 인지 작용을 드러내는 것(드러냄), 청자에게 자신의 행위를 알리고자 하는 것(알림),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것(행동 유발),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행동),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감탄사가 포함되는 기타 의도로 구분된다.

<표 1> 전영옥(2012)의 감탄사 구분

분류 기준		예	
드러냄	감정	아, 아유, 아이구...	
		노래	에루화, 상사뒤요...
		욕설	난장맞을, 넌장...
		장례	아이고, 애고애고...
		문어체	시호시호, 오홉다
		뱃사람	어기야, 어기야디야...
	인지	이빨싸, 아차...	
		지화자, 브라보...	
		기원	아멘, 나무아미타불...
알림	에헬, 에헬...		
	곤두곤두, 오버...		
행동 유발	쉬, 아서라, 자...		
	군인	거총, 걸어총...	
	동물	굽아, 두두, 쉬...	
	유아	걸음마, 곤지곤지...	
	집단	어기여차, 영차...	
	개인	앗, 얌...	
	기타	레디고, 옛단쇠...	

행동	부름		야, 애, 어이...
		가족 관계	고모부, 빙모님...
		동물	구구, 아나나비아...
		기타	복, 여보세요
	응답		네, 예, 그래...
			유유
	인사		빠이빠이, 안녕...
	기타		땡, 메롱...
기타 의도		거시기, 그, 뭐...	

감탄사는 대체로 일정한 어조가 결부되거나 얼굴 표정, 손짓 등이 동반되는 구어적 상황에서 쓰이므로 상황에 따라 동일한 감탄사가 여러 가지 감정을 나타내는 데 쓰일 수 있다(남기심과 고영근 2014: 178). 예컨대 감탄사 ‘아’는 놀라움을 표시하는 말과 어떤 사실을 처음 인지한 경우에 각각 사용되는 감탄사로 구분될 수 있다. 전영옥(2012: 248)은 기쁨, 놀람, 슬픔 등을 나타내는 ‘아’는 의미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감정감탄사로, 그리고 모르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는 소리인 ‘아’는 인지 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감탄사 ‘아’가 사용되는 맥락은 놀람, 당황, 초조, 다급함, 기쁨, 슬픔, 뉘우침, 칭찬, 주의 끌기, 모르던 것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열 가지 맥락으로 나뉜다. 따라서 번역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별 감탄사의 의미와 기능을 파악하고자 할 때 해당 감탄사의 구체적인 화맥적 의미를 고려하여야 한다.

감탄사의 분류에 대한 합치된 견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감탄사의 담화 의미를 기준으로 한 분류 방식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감탄사에 포함시킬지에 관하여도 의견이 엇갈린다. 예컨대 전영옥(2012)에서 감탄사 ‘아이고’는 의미가 고정된 경우와 의미가 고정되지 않은 경우로 나뉜다. 의미가 고정되지 않은 경우는 ‘아픔,’ ‘반가움,’ ‘절망’ 등을 나타내는 감탄사를 의미하고, 의미가 고정된 경우는 장례식에서 곡하는 소리로 쓰이는 ‘아이고’ 소리이다. 그러나 김미선(2010: 124)은 곡하는 소리 ‘아이고’는 남이 낸 소리를 시늉하는 것일 뿐, 언어 사용자의 감정이 실려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이를 상징부사로 간주한다. 그리고 같은 논리에서 동물의 울음소리를 나타내는 ‘어흥’이나 사람이 우는 소리를 흉내 내는 ‘영영,’ ‘잉잉’도 부사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고에서는 전치사의 의미를 가장 자세하게 분류한 전영옥(2012)의 분류에서 하위 범주를 기준으로 감탄사를 분류하되, ‘기타 의도’는 의미에 따른 세부 구분이 없으므로 남기심과 고영근(2014)의 분류에 따라 ‘입버릇 및 더듬거림’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2.2 영어 감탄사의 분류

감탄사(interjections)는 의미를 창출하지 않고, 다른 품사 범주와 통사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며, 그 기능이 순전히 감정 표시적인 품사를 지시하는 말들을 분류할 때 전통적으로 사용된 술어이다(Crystal 2008: 249). 영어의 감탄사가 의성어, 단일어형 요소(예컨대 ‘ouch, oh, wow, oops’ 등), 어구형 요소(예컨대 ‘thank you, good heavens, for God’s sake’ 등)가 포함되는 혼질적인 품사라는 점은 감탄사에 대한 통일된 시각을 갖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Cuenca 2000: 34).

아메카(Amecka 1992: 105-11)는 이와 유사하게 감탄사가 형태적, 음운적, 의미적으로 언어적 경계성을 갖는가를 기준으로 일차적 감탄사(primary interjections)와 이차적 감탄사(secondary interjections)를 구분한다. 일차적 감탄사는 ‘Ouch!, Wow! Gee! Oho!, Oops!’와 같이 통상적으로 다른 단어들과 함께 구문을 구성하지 않는 소형 단어(little words)나 비단어(non-words)를 말하며, 이차적 감탄사는 ‘Help!, Damn!, Shame!, Goddamit!’⁴⁾과 같이 독립적인 의미 값을 갖지만 관습적으로 홀로 쓰여 정신적 태도나 상태를 나타낸다.

감탄사라는 용어 대신 ‘response cries’⁵⁾로 감탄사 부류를 기술하는 고프만(Goffman 1981: 90-100, Cuenca 2000에서 재인용)에게 감탄사는 품사의 하나가 아닌 비어휘화된 발성에 불과하다. 예컨대 ‘Ooops!’와 같은 감탄사를 그는 ‘완전한 단어가 아닌 감탄형 간투사(exclamatory interjection),’ ‘비어휘화된 간투사(nonlexicalized interjection),’ ‘비낱말 발성(non-word vocalization)’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감탄사를 좁은 의미에서 설명한다.

4) Amecka(1992: 111)는 이차적 감탄사 중 단일형태소로 이루어지지 않은 ‘Goddamit!’ 같은 감탄사를 복합감탄사(complex interjections)로, 그리고 복수의 단어로 이루어진 ‘Bloody hell!, Dear me!, My Goodness!, Thank God!’ 같은 감탄사를 감탄사적 어구(interjectional phrase)라고 칭한다.

5) 반응으로 내는 외마디 소리(연구자 주)

라이버트(Libert 2011: 286-88)는 대화에서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참여자(participant)의 수를 의미하는 대화적 향가(conversational valence)의 개념을 적용하여 대화적 향가가 1인 경우만 감탄사이므로 ‘ouch!’나 ‘ah!’는 감탄사가 될 수 있어도 ‘goodbye,’ ‘thank you,’ ‘sorry’는 감탄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ouch’는 청자나 대화상대방이 없는 상황에서 발화할 수 있지만 ‘goodbye’는 화자와 청자, 즉 적어도 두 명의 참여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비어즈빅카(Wierzbicka 2003: 290)도 감탄사를 정의하면서 ‘의미적으로 관련된 대상으로 인식되는 다른 어휘 항목과 동음이의 관계에 있지 않은 언어 기호’로 한정함으로써 ‘원형적(prototypical),’ 단일형태소적 감탄사만 감탄사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한편, 감탄사의 언어적 경계성으로 인한 분류의 혼선과는 별도로 비어즈빅카(2003: 291)는 감탄사가 지시하는 화자의 정신 상태나 정신적 행동의 성격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감정감탄사(yuk!, phew!, whew! 등), 의지감탄사(shoo!, gee-up!, shush!, psst! 등), 인지감탄사(oh-oh![혹은 uh-oh!])를 분류하였다.

이에 반하여 아메카(1992: 113-14)는 뵐러(Bühler 1934)가 제시한 언어기능 모델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감탄사를 표현(expressive), 행동유발(conative), 친교(phatic) 감탄사로 구분한다. 표현 감탄사는 화자의 상태에 초점을 맞추고, 행동유발 감탄사는 화자의 바람에 초점을 맞추며, 친교 감탄사는 접촉의 확립과 관련된다.

〈표 2〉 Ameka(1992)의 감탄사 구분

표현	감정	Yuk!, Wow!, Ouch!, Ugh!
	인지	Aha!
행동유발	주의 환기, 반응 유발, 동물을 부르는 소리	sh!, eh?
친교	맞장구, 피드백(feedback), 인사, 작별인사, 환영	mhm, uh-huh, yeah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메카(1992)의 구분에서는 친교적 기능을 수행하는 감탄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어즈빅카(2003)의 구분과 구별된다. 하지만 두 학자가 모두 개별 항목이 복수의 기능을 가질 수 있고 여러 범주에 포

함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구분을 엄격하게 따를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눈여겨 볼만하다. 예컨대 아메카(1992: 114)의 구분에서 ‘맞장구’의 의미를 갖는 ‘uh-huh’는 의사소통에 대한 발화자의 이해 및 정신적 관여와 관련하여 자신의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인지로 분류될 수도 있다.

한편, 크루즈(Cruz 2010: 41)는 위에서 언급된 모든 유형의 감탄사를 가장 일반적이고 세밀하게 분류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감탄사는 감정(Yuk!, Ugh!, Phew! 등), 앞의 상태(Huh!, Indeed!, Oh! 등), 정형화된 표현(So long! Cheers! Thank you! Thanks! 등), 욕설 및 저주(Shit!, Bastard!, Hell! 등), 주의 및 환기(Hey! Pss! Eh! Ahem! 등), 일부 불변화사 및 반응어(Yes!, No! 등), 동물에게 쓰는 말(Whoa!), 의성어(Hehe!)로 나뉜다.

이와 같이 영어의 감탄사는 그 형태적, 음운적, 화용적 특성으로 인하여 명확하게 분류하는 것이 쉽지 않다. 다만 번역자는 이와 같은 감탄사의 분류에서 특정 감탄사가 특정 화맥 속에서 갖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상기 분류 방식의 하위 구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번역자는 감탄사의 의미구조를 분석하여 주어진 번역 상황에서 양 언어 감탄사나 ST(source text) 감탄사와 TL(target language) 감탄사, 혹은 TL 감탄사를 대체할 수 있는 항목 간 효과의 등가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3. 동화에 나타난 한국어 감탄사의 영어 번역 사례

본장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한국어 감탄사 구분을 바탕으로 한국의 창작동화 및 전래동화 12편과 이 동화들의 영어판 14편에 쓰인 감탄사를 분류한 후 행동⁶⁾의 감탄사⁶⁾를 제외하고 이러한 감탄사의 영어 번역 양상을 살펴본다. 본장에서 참고한 도서는 아래의 표3과 같다.

6) 행동의 감탄사는 전영옥(2012)에서 부름, 응답, 인사, 기타로 분류된다. 상기 동화 12편에 나타난 행동의 감탄사는 ‘아저씨, 그래그래(응답), 언니, 예, 영감, 할아버지, 안녕(만남의 인사), 안녕(작별 인사), 어(응답), 응’이며, 주로 부름의 감탄사와 응답의 감탄사이다. 이 중 부름의 경우 ‘아저씨’나 ‘언니’처럼 상대적으로 더 문화 특수적인 항목은 생략에 의한 번역이 흔히 눈에 띄었다.

이 동화들의 대상 연령은 모두 4, 5세에서 많게는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를 주된 대상으로 한다. 본장에 쓰인 ‘등가성’이라는 술어는 번역의 적절성을 묻기 위한 개념이 아니라 번역어로 쓰인 감탄사나 기타 항목이 그 의미와 기능, 그리고 음운적 특성이 ST의 감탄사와 유사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임을 일러둔다.

〈표 3〉 본고에서 참고한 한국어 동화와 영문판 서명

	한국어 동화	글/그림	출판사	영문판 서명
1	개구리가 알을 낳았어	이성실/이태수	다섯수레	Look! A Frog Has Laid Its Eggs
2	심심해서 그랬어	윤구병/이태수	보리	Just Because I Was Bored/Because I Was Bored
3	황소아저씨	권정생/정승각	길벗어린이	Uncle Cow
4	아기 오리 열두 마리는 너무 많아!	채인선/유승하	길벗어린이	How Do You Count a Dozen Ducklings?
5	훨훨 간다	권정생/김용철	국민서관	제목없음/Flap Flap
6	내 보물 1호 티노	김영수/김영수	비룡소	Tino: My Number One Dinosaur
7	강아지똥	권정생/정승각	길벗어린이	Puppy Poo
8	설빔	배현주/배현주	사계절	New Clothes for New Year's Day
9	도대체 그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호백/이호백	재미마주	While We Were Out
10	솔이의 추석 이야기	이억배/이억배	길벗어린이	Sori's Harvest Moon
11	호랑이와 곱감	위기철/김환영	국민서관	The Tiger & the Persimmon
12	고양이는 나만 따라 해	권윤덕/권윤덕	창비	My Cat Copies Me

3.1 드러냄

상기 동화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감탄사는 드러냄의 감탄사로 전체 81개 감탄사 중 대략 70퍼센트에 해당하는 56개가 쓰였다.⁷⁾ 이러한 드러냄의 감탄사 중 기원을 나타내는 감탄사는 본고에서 연구한 동화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전체 드러냄의 감탄사 57개 중 약 16개가 인지를 나타냈고 나머지는 모두 감정의 감탄사였다. 드러냄의 감탄사는 상기 동화에서 흔하게 쓰였고 종류도 다양하여 감정과 인지로 나누어 살펴본다.

3.1.1 감정

상기 동화 12편에 쓰인 감정의 감탄사 유형은 아래와 같다.

에그, 아이, 아휴, 앙앙앙, 아, 앓, 예끼, 하하하하, 호호호호, 아이구,
 어머니, 예그, 뭐야, 으앙, 어흥, 으아앙, 잉잉, 아이고, 아이쿠, 아이고,
 하하하, 아야야, 으악, 으악, 어머, 애고, 아야, 히히, 우와, 와,
 까악, 히히히

아래의 예(1)은 상기 동화 12편에 쓰인 드러냄의 감탄사 중 감정을 나타내는 감탄사의 여러 번역 사례에서 TT 감탄사가 ST 감탄사와 등가적이지 않은 경우이다. 드러냄의 감탄사 중 감정의 감탄사는 그 비중만큼이나 비등가적 번역 사례가 비교적 많이 나타났다.

(1)

a. ST: “어머나! 가여워라. (강아지똥)

TT: “Omigosh! How pitiful.

b. ST: “우와! 눈이다. 새 눈이 오신다! (설빔)

7) 전영옥(2012: 243-56)의 감탄사 목록을 참고하였으며, 방언과 변이형은 표준어나 원형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예컨대 ‘응?’의 경우 사전에 등재된 형태는 ‘영, 넌 누구냐?’의 ‘영’과 같은 범주로 분류하였고 ‘어라!’의 경우 표준어인 ‘어!’와 같은 것으로 보았다. 중복된 경우도 바로 중복되어 나오는 경우가 아니면 별도의 화맥을 갖는 별개의 감탄사로 포함시켰다.

TT: New snow for New Year's Day!

c. ST: “으악! 오리가 너무 많잖아. 어떻게 된 거지? (아기 오리 열두 마리는 너무 많아)

TT: “AHA! The hungry wolf GROWLED and leapt out, but there were too many ducklings to count!

d. ST: “아이구 영감, 어디서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바꿔왔수? (훠훠간다)

TT: “Aigu, my dear, where did you get such an amusing story?

e. ST: “예끼, 이놈! (훠훠간다)

TT1: “You bad boy!”

TT2: “Hey you!”

a의 TT에 쓰인 ‘oh my god!’의 가시방언(eye dialect)⁸⁾인 ‘omigosh’는 발화자의 성격이나 등장인물이 속할 법한 특정 계층이나 지역을 연상시킨다⁹⁾는 점에서 단순히 여성을 연상시키는 ‘어머나’와 등가적이지 않다. b의 경우 뜻밖의 기쁜 일이 있을 때 내는 소리인 ‘우와!’가 TT에서 생략되었고 등장인물의 발화는 해설자의 목소리로 변화하여 TT에서 ST의 생동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c도 번역 과정에서 등장인물의 목소리가 해설자의 목소리로 변화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ST와 TT에 쓰인 감탄사가 서로 다른 의미 범주의 감탄사라는 점이다. ST에 쓰인 ‘으악’은 놀람을 나타내는 감정의 감탄사인데 반하여, 이 감탄사의 번역어로 쓰인 ‘aha!’는 인지를 나타내거나, 크루즈(2010: 41)의 구분에 의하면 ‘앓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다.

d는 이른바 ‘팬 자막’ 등 격식을 요하지 않는 영상 번역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처럼 감탄사를 음차 번역하였고, 이를 이탤릭체로 표현하여 해당 감탄사가 외국어임을 나타내고 있다. 『훠훠간다』의 번역서는 서두에 일러두기를 통해 번역서에 쓰인 한국어 표현을 소개하고 있지만 같은 번역 전략에 기대고 있는

8) 인터넷 오픈 백과사전 위키피디아(Wikipedia)에 따르면 가시방언이란 표준적인 철자를 비표준적인 철자로, 즉 소리 나는 대로 쓴 것으로 이러한 비표준적인 철자는 등장인물의 말이 대체적으로 사투리어거나 외국인 같거나 무식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9) 인터넷 오픈 콘텐츠 사전인 어반딕셔너리(Urban Dictionary)에 따르면 감탄사 ‘omigosh’는 ‘omigod,’ ‘oh my god’ 혹은 ‘oh my gosh’와 같은 말로서 멍청해 보이는(ditzy) 여성이 세 단어의 발음을 불분명하게 발음한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호랑이와 꽃감』은 ‘Aigo! Aiyaya! Save me!’처럼 음차 번역된 감탄사가 이탤릭체가 아니며 일러두기가 없어 경우에 따라서는 독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e에서 감정의 감탄사 ‘예끼’는 ‘때릴 듯한 기세로 나무라거나 화가 났을 때 내는 소리’로서 주로 나이가 비슷한 사람이나 아랫사람에게 쓰는 감탄사이다. 이 감탄사는 한국인의 독특한 정서를 담고 있어 번역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두 가지 버전의 TT에서 엿볼 수 있다. 해당 감탄사는 할아버지가 논두렁의 황새에게 하는 말이다. 이 때 ‘예끼’의 대응어는 ‘damn it,’ ‘damn you,’ ‘confound you’와 같은 욕설류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동화에 적절치 못한 비속어라는 점과 표현성이 지나치게 강화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러한 표현이 고려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황새’를 지시하는 ‘이놈’의 경우 ‘you bad stork’나 ‘you little rascal’ 같은 표현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예끼, 이놈!’이 결정적으로 이 동화에서 집에 든 도둑을 쫓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역시 적절치 않을 수 있다. ‘stork’라는 말이 이러한 기능을 하기에 적절치 않고 ‘rascal’은 품행이 나쁘지만 밋지 않은 대상을 유머러스하게 지시하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역시 ‘도둑’을 쫓는 데 쓸 말은 아닌 까닭이다. 결론적으로 두 버전의 TT는 이러한 고민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감탄사로 쓰인 ‘소리흥내말’은 ST 감탄사가 주는 리듬감과 생동감을 살릴 수 있는 최적의 등가적 TL 감탄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번역 절차일 수 있다. 아래의 예(2)는 이러한 의성어의 번역 사례이다.

(2)

a. ST: “앙앙앙, 난 몰라. (심심해서 그랬어)

TT1: “Sob, sob, wah, wah...”

TT2: “Waah, waah. What a mess!”

b. ST: “으아앙, 잉잉! (호랑이와 꽃감)

TT: “WAAAHH, WAAAHH!”

c. ST: “하하하하. “호호호호. (훤훤 간다)

TT1: “Ha ha ha ha.” “Ho ho ho ho.”

TT2: With that *haraboji* and *halmoni* had themselves a good, loud, merry laugh.

상기 예에서 a와 b의 ST에 쓰인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흉내 낸 말은 그림 동화에서 흔하게 쓰일 법한 의성어이다. 이 외에도 상기 동화에는 ‘으앙!’이 쓰였으며 이러한 울음소리에 대한 번역어로는 a의 TT에 쓰인 ‘wah’외에도 이를 ‘Waaah, waaah!’나 ‘Waaaaa! Waaaaa!’와 같이 모음을 늘려 쓴 형태도 볼 수 있다. 특히 b와 같이 울음소리 의성어 전체를 대문자로 표현하여 울음을 그치기 커녕 더 거세게 울어대는 아이의 태도를 강조한 것은 TT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장치이다. c의 ‘하하하하,’ ‘호호호호’는 각각 입을 벌리거나 오므리고 웃는 소리를 나타내는 감탄사 ‘하하’와 ‘호호’를 겹쳐 쓴 형태이다. 이러한 감탄사 역시 TL의 감탄사 목록에 이와 거의 등가적인 ‘ha-ha, ha ha, ha ha ha, hahaha, ho-ho, ho ho, ho ho ho’ 등이 있어 흉내말이 주는 효과의 등가를 달성하기가 비교적 용이한 감탄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T2의 경우 감탄사를 쓰는 대신 설명적 문구를 활용하여 번역한 것이 이채롭다.

3.1.2 인지

상기 동화 12편에 쓰인 드러냄의 감탄사 중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내는 소리인 인지를 나타내는 감탄사의 유형은 아래와 같다.

얼레, 아니, 그래애, 읊지, 어라, 응, 어, 아하, 그래, 세상에

인지 감탄사의 번역 사례는 아래의 예(3)과 같다.

(3)

a. ST: ‘어라! 마침 소가 마당에 있네.’ (호랑이와 꽃감)

TT: Aha! he thought, A Cow! And it’s right in the yard!

b. ST: 어..... 안 되는데. 그럼 분홍색 공룡은 어디서 찾지? (내 보물 1호 티노)

TT: Uh-oh. That’s bad news. Where am I going to find a pink dinosaur?

c. ST: 그래, 그거야! (내 보물 1호 티노)

TT: I have an idea!

인지를 나타내는 감탄사는 위 예에서 a와 b처럼 대체로 ST 감탄사와 동일한 의미 범주에 속하는 영어 감탄사로 번역되었으며, 종종 c와 같이 생략된 사례를 볼 수 있다. 상기 동화 12편에서 ST에 쓰인 인지의 감탄사에 대한 번역어로 쓰인 감탄사는 ‘good heavens,’ ‘oh,’ ‘oh, yes,’ ‘huh?’ 등을 들 수 있다.

3.2 알림

상기 동화에서 청자에게 자신의 행위를 알리고자 할 때 쓰이는 알림의 감탄사는 ‘에헴!’과 ‘오타!’의 두 가지만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감탄사의 번역 사례는 아래의 예(4)와 같다.

(4)

a. ST: 할아버지는 기침을 한 번 “에헴! 하고는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훔칠 간다)

TT1: “Ahem, haraboji cleared his throat importantly.

TT2: The grandfather cleared his throat and began to speak.

b. ST: “오타! 꾀감이다, 꾀감! (호랑이와 꾀감)

TT: “Look! said the mother, “A persimmon! It’s persimmon!”

상기 예(4)의 a에 쓰인 감탄사 ‘에헴’은 ‘짐짓 점잔을 빼거나 인기척을 내려고 일부러 내는 큰기침 소리’로 정의된다. 여기에서 ST의 ‘에헴’은 할아버지가 밖에서 듣고 온 이야기를 하기 전에 보여주는, 다소 거들먹거리는 태도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이야기를 시작하겠다는 ‘신호’를 주려는 담화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의 TT1에 쓰인 감탄사 ‘ahem’은 목을 가다듬는 소리를 흉내 낸 말이며 상대방의 주의를 끌려고 하거나 곤란할 때 내는 소리이다. TT1의 ‘ahem’은 ST의 ‘에헴’과 담화 기능에 있어 가장 근사한 감탄사이지만 ST에서 ‘에헴’이 주는 정서적 이미지는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TT1에서는 ‘importantly’라는 부사를 통해 이러한 번역 손실을 보상하고 있다. 반면에 감탄사가 쓰이지 않은 TT2는 ‘목을 가다듬는 소리’라는 ‘ahem’의 원형적 기능만을 담고 있다. b에서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면서 하는 말’인 ‘오타’는 이와 등가적인 감탄사인 ‘look!’으로 번역되었다.

3.3 행동 유발

청자의 행동을 유발할 때 쓰이는 감탄사는 상기 동화 12편에서 아래와 같은 유형이 쓰였다.

이랴, 위위위, 휘이휘이, 푹, 여차, 영차, 자, 어흥

아래는 상기 동화 12편에 나온 행동 유발의 감탄사와 이에 대한 번역 사례이다.

(5)

a. ST: “이랴, 이랴, 위위위, 엄마랑 아빠는 동물들을 다시 우리에게 몰아넣습니다. (심심해서 그랬어)

TT1: “Come on, come back. Mom and dad push the animals back into the pens.

TT2: “Whoa, whoa! Mom and Dad round up the animals and put them back in their cages and pens.

b. ST: “휘이휘이 (심심해서 그랬어)

TT1: “Hey, go away.

TT2: “Shoo, shoo.

c. ST: 수늑을 한 발씩 차례차례 힘주어 당겨 신어요. “영차! (설빔)

TT: One after the other [sic] put on the cotton socks with their red-flower embroidery.... “Oomph!

d. ST: “문 밖에 호랑이 왔다. 푹! (호랑이와 꽃감)

TT: “Hush! There’s a tiger outside the door,

상기 동화에 쓰인 행동 유발의 감탄사는 대체적으로 등가적인 감탄사가 TL의 어휘 목록에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다. 예컨대 소나 말을 몰 때 행동을 재촉하는 소리인 a의 한국어 감탄사 ‘이랴’가 갖는 원형적인 화맥상의 의미는 TL의 ‘giddy-up, giddap, giddyap, gee ho, gee up, gee wo’ 등과 매우 유사하다. 마찬가지로 소나 말을 몰 때 행동을 멈추라는 의미에서 내는 소리인 ‘우어’의 준말 ‘위’도 ‘whoa’나 ‘wo’와 원형적 의미 및 음운적 특성이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그 대상이 마소로 국한되지 않고 그 의미도 ‘격려,’ ‘재촉,’ ‘불신,’ ‘짜증’ 등의 여러 화맥적 의미를 담고 있는 감탄사인 ‘come on’으로 ST 감

탄사의 담화 기능을 대신한 a의 TT1이나 ‘이라, 이랴’를 제외하고 ‘위위위’에 대한 등가적 감탄사만으로 번역한 TT2는 ST와 등가적이라 할 수 없다. b의 경우 닭이나 참새 따위를 쫓을 때 내는 소리인 ‘휘이’도 동물을 쫓을 때 내는 소리인 TL의 ‘shoo’와 담화적 기능과 의미가 거의 등가적이다. c의 ST에 쓰인 ‘영차’는 ‘여차’와 같은 말로서 전영옥(2012: 253)은 이를 자신이 포함된 집단에 힘을 내자고 할 때 쓰는 말로 분류하고 있지만 상기 동화에 쓰인 영차는 행동 유발의 대상이 발화자 자신이다. 동화 『설빔』에서는 ‘영차’와 ‘여차’가 함께 나오며, 갑자기 힘을 쓸 때 내는 소리인 TL의 ‘oomph’와 ‘umph’가 거의 등가적인 번역어로 사용되었다. d의 TT에 쓰인 ‘hush’도 상대방을 조용히 시킬 때뿐만 아니라 울음을 멈추게 할 때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ST의 ‘뚝’과 그 화맥적 의미와 기능이 매우 유사하다.

한편, 『호랑이와 꽃감』에 쓰인 ‘어흥’은 전영옥(2012: 251)의 분류에 따라 행동유발의 감탄사로 분류하였다. 아래는 한국어 감탄사 ‘어흥’의 번역 사례이다.

(6)

- a. ST: “어흥! 아이고 배고파... (호랑이와 꽃감)
 TT: “Grrrr. I’m starving...
 b. ST: ““어흥!”하고 달려들지도 몰라. 뚝! (호랑이와 꽃감)
 TT: “He’ll ROAR and come get you.

예(7)에서 a의 TT에 쓰인 ‘grrrr’는 개를 비롯한 짐승이 으르렁 거리는 소리인 동시에 사람의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한 불만족이나 화가 나있음을 나타내고자 하는 경우에 쓰일 수 있는 말로서 한국어 감탄사 ‘어흥’과 그 의미나 음운적 특성이 가장 근사한 영어 감탄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b의 화맥에서는 ‘grrrr’가 ‘어흥’과 등가적으로 쓰이기 힘들다. b의 경우 ‘어흥’이 단순히 호랑이의 울음소리를 흉내 낸 말이 아니라 우는 아이를 겁주어 달래려는 엄마의 의도가 내재된 표현이기 때문이다. 또한 a의 ST는 호랑이의 발화이지만 b의 발화는 엄마의 발화라는 점은 이러한 기능적 차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번역자는 TT에서 감탄사를 쓰지 않고 일반 동사를 써 번역하고 ST에서 ‘어흥’에 흔히 주게 되는 강세를 대문자를 통해 강조하였다.

3.4 입버릇 및 더듬거림

입버릇 및 더듬거림으로 분류된 감탄사는 머뭇거림, 입버릇, 말 더듬음, 시간 벌기, 주의 끌기 등의 담화 기능을 갖는 감탄사들이다. 상기 동화 12편에 나타난 입버릇 및 더듬거림의 감탄사는 대체적으로 머뭇거림 혹은 시간 벌기의 의미를 갖는 것들로서 ‘음,’ ‘저어,’ ‘글썸’의 세 가지가 쓰였다. 이러한 감탄사의 번역 사례는 아래와 같다.

(7)

a. ST: “음..... 영수가 가장 좋아하는 걸 주면 되지. (내 보물 1호 티노)

TT: “Hmmmm... The best present would be your favorite thing in the world.

b. ST: “넌 누구냐? “저어..... 생쥐예요. (황소아저씨)

TT: “Who are you? “I'm.. Little Squeakie.

c. ST: “분홍색? 글썸, 우리 가게에는 초록색 공룡밖에 없는데. (내 보물 1호 티노)

TT: “Pink dinosaurs? Sorry son, we only have green ones.

위의 예(7)에서 a의 ‘음’은 수긍, 불만, 의문을 나타내는 감탄사로서 여기에 서는 의구심을 나타낼 때 쓰는 말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의구심과 주저함을 나타내는 TL의 감탄사는 ‘hmmmm, hmm, hm(h’m), mmm, hem’ 등이 있다. 따라서 a의 TT는 등가적인 감탄사를 통한 번역이라 할 수 있다.

b의 경우 ‘저어’는 어떤 생각이나 말이 얼른 잘 떠오르지 않는 경우나 말을 꺼내기가 어색하거나 곤란하여 머뭇거릴 때 쓰는 ‘저’의 변이형이다. 따라서 b의 TT에 쓰인 ‘I’m’은 담화적 기능이 ST의 ‘저어’와 상이하여 등가적이지 않다. c의 ‘글썸’은 남의 물음이나 요구에 대하여 분명하지 않은 태도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다. TT에는 이에 대한 대표적인 등가적 감탄사인 ‘well’을 쓰지 않았다. 이러한 번역은 발화자가 불분명한 태도를 취한 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갖고 있지 않아 미안해하거나 안타깝게 느꼈기 때문이라고 번역자가 해석한 결과일 수 있다.

흥미롭게도 본장에서 살펴본 한국의 그림 동화 12편에 나타난 감탄사 상당수에 대하여 해당 담화 맥락에서 등가적인 감탄사가 영어에도 존재한다. 따라

서 번역자는 한국어 감탄사를 번역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TL의 어휘 목록에 포함된 감탄사를 탐색하고 그 결과로 얻은 어휘 목록을 바탕으로 특정 감탄사가 주어진 화맥에서 그 기능과 의미가 등가적인지 판단하는 절차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본고는 화맥적 의미와 언어적 경계성을 기준으로 한 한국어와 영어의 감탄사 분류 방법을 살펴본 후 한국어 그림 동화 12편에 쓰인 한국어 감탄사의 담화 의미를 주로 전영옥(2012)의 연구에 의존하여 구분하고 그 번역 양상을 고찰하였다. 본고는 이 감탄사들을 드러냄, 알림, 행동, 행동 유발, 입버릇 및 더듬거림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그림 동화에 쓰인 감탄사는 그 종류가 매우 제한적이고 유형이 표준적이어서 대체적으로 등가적인 영어 감탄사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번역 사례에서는 등가적 감탄사를 활용한 번역과 상이한 의미 범주의 감탄사를 활용한 번역, 일반적인 어휘를 통해 감탄사의 의미를 풀어 쓴 번역, 단순 생략 등의 양상이 나타났다.

본고의 연구는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분량의 언어 자료에 나타난 일부 사례만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언급하고 있는 감탄사의 유형은 매우 표준적이고 그 수도 제한적이다. 이뿐만 아니라 본고가 암시하는 번역 방법도 지나치게 언어 부호의 치환에 의한 번역을 중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어 동화가 제대로 외국어로 번역되려면 언어 전문가뿐만 아니라 유아 및 아동 교육 전문가의 참여가 불가피할 수 있다. 물론 두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 조건이 이러한 이상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번역자는 표준적인 감탄사의 목록을 폭넓게 살피는 일부터 수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현겸 (2013) 『생각의 힘을 키우는 동화구연[2기]』, 대구: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 김미선 (2010) 「감탄사의 범주 설정에 대한 재고찰」, 『어문논집』 45: 117-46.
- 김양진 (2011. 10) 「조상들의 재치가 엿보이는 감탄사」, 『새교육』, 2011년 2월 4일 접속
- 김현숙 (2000) 『현대 아동문학의 팬타지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남기심, 고영근 (2014) 『표준 국어 문법론』, 제4판, 서울: 박이정.
- 신지연 (2001) 「감탄사의 의미 구조」, 『한국어 의미학』 8: 241-59.
- 이지영 (2013) 「환상동화 텍스트의 재미 요소 연구」, 『한국아동문학연구』 (24): 263-301.
- 전영옥 (2012) 「한국어 감탄사의 유형 분류 연구」, 『한말연구』 31: 229-260.
- Ameka, Felix (1992) 'Interjections: The Universal yet Neglected Part of Speech,' *Journal of Pragmatics* 18: 101-18.
- Bühler, Karl (1934) *Sprachtheorie*, Oxford, England: Fischer.
- Cuenca, Maria Josep (2000) 'Defining the Indefinable?: Interjections,' *Syntaxis* 3: 29-44.
- Cruz, Manuel Padilla (2010) 'What Do Interjections Contribute to Communication and How Are They Integrated?: A Cognitive Pragmatic Account' in Iwona Witzak-Plisiecka (ed.) *Speech actions in theory and applied studies*, Newcastle: Cambridge, 39-68.
- Crystal, David (2008) *A Dictionary of Linguistics and Phonetics*. sixth edition. Malden: Blackwell.
- Libert, Alan Reed (2011) 'On Conversational Valence and the Definition of Interjections,' in *Proceedings of the 42th ALS Conference*, Canberra: ALS.
- Wierzbicka, Anna (2003) *Cross-Cultural Pragmatics: The Semantics of Human Interaction*. second edition, Berlin: De Gruyter Mouton.

[Abstract]

A Case Study of English Translations of Korean Interjections

Joo, Jinkook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Interjections are a group of words or utterances that express the speaker's state of instinctive surprise, feelings, intention to get attention, response, etc. This peculiar group of words or non-words have traditionally fallen under the category of a disparate word class. Interjections are sometimes an indispensable part of many children's stories as they serve the role of bringing to life the feelings, emotions, or attitudes of the human and personified animal characters that appear in such sto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Korean and English interjections classified based on their discourse functions and meanings and examine the methods employed in translating Korean interjections into English. To this end, Korean interjections that occurred in 12 Korean Children's stories have been classified based on some important previous studies into five categories—displaying, notifying, inducing actions, actions, and hesitation and stammering—and their English translations have been studied.

▶ Key Words: interjections, equivalence, discourse function, context of utterance

주진국

충남대 영어영문학과 조교수

joojkook@cnu.ac.kr

관심분야: 텍스트 유형론, 담화텍스트론, 전문 문서 번역

논문투고일: 2016년 4월 29일

심사완료일: 2016년 6월 9일

게재확정일: 2016년 6월 15일